

카페 문화에 부는 변화의 바람

말레이시아사무소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의 등장

- 소위 '빅 체인(Big Chains)'이라 불리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중심으로 카페문화가 발달했던 말레이시아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스페셜리스트 커피숍(Specialist Coffee Shop)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이란 재배 단계부터 커피로 내릴 때까지 잘 관리된 원두를 전문적인 바리스타가 내리는 카페를 의미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에 더해 독특하거나 잘 꾸며진 외관을 갖추는 것이 점차 카페문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2017년 한 해 동안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은 매장 수와 거래량 등 모든 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추세는 변화하고 있는 카페문화로 인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카페 호핑, 새로움을 마시다

- 말레이시아 젊은층 사이에서는 '카페 호핑(Cafe Hopping)'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카페 호핑이란 잘 꾸며진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을 방문해 새로 출시된 음료를 마시는 유행을 일컫는 용어이다.
- 젊은층들은 카페 호핑을 통해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업무협의 등을 위해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을 방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다.

꼬삐띠암과 스페셜리스트 커피숍

- 말레이시아에는 일반적으로 '꼬삐띠암(Kopitiam)'이라는 카페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다. 꼬삐띠암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지에서 음식을 곁들여서 파는 전통적인 카페를 일컫는 말이다.

카페 매장 수 증가율





‘꼬삐띠암(Kopitiam)’이라는 카페문화

- 말레이시아에서 꼬삐띠암은 특히 중국식 카페를 뜻하는데, 올드타운 화이트 커피(Old Town White Coffee)가 대표적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진한 커피와 함께 가벼운 먹거리나 식사 메뉴를 함께 제공해왔다.
- 최근에는 꼬삐띠암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카페가 등장하면서 커피 맛이 변화하고 있다. 쓰고 무거운 커피를 판매하는 꼬삐띠암과는 달리 스페셜리스트 커피숍에서는 가볍고 달콤하며 과일향이 가미된 호주산 스페셜티 커피를 제공한다.

카페와 일터가 접목되는 곳, APW 방사르

- 최근 커피 트렌드가 가장 독특하게 발현된 곳은 바로 APW 방사르(APW Bangsar)이다. 수 년 전 인쇄소 소음만이 들려왔던 이곳은 오늘날 북적이는 사람들의 말소리로 가득하다.
- APW는 ‘Art Printing Works’의 약자로, 말 그대로 상업 인쇄소였으나, 2013년 활용되지 않던 공간을 재구성하는 아이디어를 통해 창의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행사나 업무공간, 레스토랑과 더불어 스페셜리스트 커피숍까지 갖춘 APW 방사르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APW 방사르(APW Bangsar)

- APW 방사르의 카페는 말레이시아의 카페 트렌드를 가장 잘 보여준다. 스페셜티 커피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매장답게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다양한 커피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SNS에 올리기 좋은 감각있는 디자인으로 매장이 꾸며져있기 때문이다. 인기 커피숍답게 자리가 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많다.

새로운 맛과 형식을 고민할 때

- 호주나 싱가포르 같은 주변국의 영향을 받으며 말레이시아의 카페 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식사와 커피를 곁들여 먹는 꼬삐띠암에서 점차 다른 커피와 차별성을 갖춘 스페셜티 커피를 취급하는 카페를 선호하게 된 것이다.
- 그에 맞춰 소비자의 행동도 변화하고 있다. 카페라는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이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커피를 소비하며 이 모든 것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 점차 도심의 대형 쇼핑몰에도 스페셜리스트 커피숍들이 입점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추어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는 국내업체들 또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맛과 형식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